

10.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같이 읽을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함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 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2-14)

1.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천국’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세밀하게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이라고 부르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거기에는 사회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망령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같은 복음서지만 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직접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말은 누가복음(23:43)과 고린도후서12:4) 그리고 요한계시록(2:7)에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말은 본래 ‘통치자의 정원’을 가리키는 파라데이소스(παράδεισος)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에 따르면 ‘낙원’은 경건한 사람들이 죽은 뒤부터 세상 마지막 때에 일반적인 부활이 있기까지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 그리고 낙원은 단어만 다를 뿐 결국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마가복음 1:15

사도행전 8:12

예수님과 제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3:2)’고 선포했습니다.

3.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잘 읽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4.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는 말은 장차 우리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로 우리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은 우리들이 장차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20

히브리서 11:16

5. 위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에 비유하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데 비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말하나요?

새 _____, 새 _____

요한계시록 2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데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나요?

요한계시록 21:3,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나요? 요한계시록 21:3,4절을 써 봅시다.

6.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 갈 수 있나요?

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

로마서 10:10

②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5

③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사도행전 4:12

④ 예복을 입은 사람만

마태복음 22:11-13

⑤ 세상의 것에 미련 갖지 않으며 뒤돌아 보지 않는 사람

누가복음 9:62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나야지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7.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 때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누가복음 17:20,21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지역이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읽은 누가복음 17:20,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흔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는 말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같은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12: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곳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8.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부분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도록 합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도 아주 적은 양으로 가루 서 말이나 되는 양을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 것 없어 보이고,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그 시작부터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44-46절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처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하나님의 나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또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은혜와 사랑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장차 우리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것과 육신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